

#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신즉물주의(新即物主義)적 경향에 관한 연구

- 렘 콜하스(OMA)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endency of Neue Sachlichkeit in Architectural Design

- Focused on Rem Koolhaas(OMA) -

박영태\* / Park, Young-Tae

### Abstract

Recently, by the expansion of Industrial Capitalism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quality of humans' life came to have various aspects. In this era of variety, among all the different attempts Rem Koolhaas(OMA)'s architectures attract attention for their architecture's new point of view in architectural design. On the basis of the objective fact in the modern world, as a construction which expresses the language naturally, and a democratic architecture of a faithful part for the whole, these kinds of approach shows the similarity and the properties of Neue Sachlichkeit which has appeared in the colloquy and photographs in Germany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n the pas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 of Neue Sachlichkeit's properties in architecture - the Neue Sachlichkeit's influence on the architecture from elementarism, Constructivsit International, ABC Group and Holland's "the De 8 and Opbouw's" architecture's move to the Holland's architecture - in colloquy and photographs from 1910 to 1930 which had the similar aspect and chronological situation of the modern world.

키워드 : 신즉물주의, 새로운 객관성, 초기능주의, 사회성, Modernity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이 연구는 정보화 사회로서 현대의 시대특성과 1910년대-1930년대의 신즉물주의를 비교하기 위한 작업이다. 회화와 사진에서의 신즉물주의적 경향을 바탕으로, 1920년대의 신즉물주의 건축과 렘 콜하스(OMA) 건축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급진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팽창과, 과학과 기술을 불모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의 급진적 변화는, 세계화와 도시화를 통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의미와 형식과 기술에 바탕을 두었던,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건축들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만나게 되었으며, 사회와 문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예술영역에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 OMA(렘 콜하스)와, OMA 출신들로 구성된 MVRDV등을 선두로 하는 네덜란드 중심의 건축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기존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건축을 표현하여 세계의 건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본질은 이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이나, 프로그램, 방법론, 테크닉 혹은 구조적, 양식적 경향과 또 그들의 저서에 비해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들이 보여준 작품들이 국제주의 양식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을 전후한 건축과, 네오모더니즘의 건축들과 가지는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건축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건축의 의미와 형태구축의 방법과 기술적인 측면이전의 건축을 대하는 근본적인 시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19세기말 모더니즘을 배경으로 사회와 예술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방향을 제시했던 신즉물주의의 본질과 속성을 바탕으로, 현대 건축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면 비교적 설득력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대 건축에 새로운 시각으로 나타나는 신즉물주의의 경향을 해석하기 위해, 작품의 시대적 특징과 영향을 시각예술과 교차시킨다. 특히 1920년대 신즉물주의 건축의 발생

\* 정회원, 동양공업전문대학 실내건축과 전임강사

배경과 1970년대 이후에 전개된 램 콜하스(OMA)건축의 상관성을 비교론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사회와 문화, 경제현실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접근자세와 차별화된 개념을 중심으로 한 것인데.)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혼란된 상황에서 일어난 미술운동인 신즉물주의의 정의와 속성을 이해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진의 역할을 배경으로, 데스틸과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신즉물주의 건축의 발전과 현대건축에 등장한 램 콜하스(OMA)의 신즉물주의적 경향을 고찰한다. 2장은 회화와 사진에 의해서 형성된 신즉물주의의 정의를 중심으로 시대적 배경과 형성과정 및 특징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3장은 신즉물주의의 건축에서의 흐름을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영향, 요소주의, 구성주의를 거쳐 ABC그룹과 네덜란드에서의 더 아흐트 및 오쁘바우 건축운동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확인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램 콜하스(OMA) 건축작품의 신즉물주의적 특성을 통해 시대적 상황에서의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동일한 경향임을 확인하였다.

## 2. 신즉물주의의 형성과 특성

### 2.1. 독일 표현주의회화와 신즉물주의의 형성

회화에 있어서 리얼리즘계열로 구분되어지는 신즉물주의는 표현주의가 주류를 이루던 제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독일의 시대적 상황에서 출발하였다. 표현주의는 흔히 안정된 불안한 사회의 통상적 가치들에 대한 반동적 예술로 간주되어 개인적 또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개인적 불안이나 사회와 자신과의 갈등을 표현하려는 예술가의 내적표현성에 의하여 충동된 것<sup>1)</sup>으로 20세기 전반에 독일 낭만주의와 니체의 철학 사상을 계승하여 현시대에 대한 불만과 인간의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비참과 정복 후에 오는 이상향을 염원하였다.<sup>2)</sup> 신즉물주의가 형성되는 원인은 표현주의가 동시대성의 표현에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지나치게 주관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대상의 즉물적인 파악이라는 주장에서 비롯되었



<그림 1> 게오르크 그로츠, 사회의 갈등, 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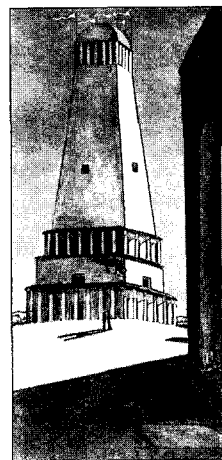
다. 신즉물주의는 1918년 대전의 패배에서 1933년 히틀러의 출현에 이르는 시대에 역사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전쟁을 겪고 난 후의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비합리적이고 과거의 주관적 경향의 표현주의에서 벗어나 당시의 사회현실을 객관적으로 재현할 것을 목

표로 하는 창작방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독일 만하임의 관장이며 “신즉물주의(新即物主義)”<sup>3)</sup>라고 명명한 하르트라우(Hartlaub)은 새로운 회화조류가 시작되었다고 강조하며, 그것은 사회주의적 방향을 지지하는 새로운 사실주의라고 정의하였고, 표현주의와 신객관성의 차이점을 전전(戰前)세대의 희망과 전후(戰後)세대의 환멸로 독일인들의 정신상태의 대립으로 보고 있다.

### 2.2. 이탈리아 형이상회화, 쩌리히 다다의 영향

신즉물주의 회화양식의 정신적인 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회화는 키리코(Giorgio de Chirico)와 카라(Carlo Carrà)에 의해 주도된 이탈리아의 형이상회화(Pittura metafisica)와 스웨



<그림 2> 조르조 데 키리코, 영원의 노스텔지어, 1914

스에서 발생한 다다이즘(Dadaism)이다.<sup>4)</sup> 형이상회화 화가들에 의해서 개발된 과장된 원근법에 의한 인물과 배경사이의 소외효과는 사물의 공허감을 나타내길 좋아했던 이들이 즐겨 취한 방법이다. 이러한 소외효과의 적용은 예술에 있어서의 사물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왔다. 키리코와 카라가 외관으로 보이는 일상적인 요소에서 완전하고 낮은 세계를 건설한 건축물, 재단용 마네킹, 기하학적 도구들을 확실한 윤곽으로 경계 지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시간을 추월한 세계를 그들의 개인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속박 속에 있는 당시의 리얼리티 속으로 끌고 가는데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로츠(George Grosz 1893-1959)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로츠는 작품 “공화국의 자동인형”에서 키리코와 카라의 인형(manicini)을 팔다리가 없는 상이군인이 전쟁불구자로 독일국기를 흔들며 시카고식의 창고건물이 즐비한 베를린의 모습을 묘사한 시사성과 함께 내면생활이 아주 정밀하게 서로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처럼 표현하였다. 쩌리히 다다의 영향은 이들의 작품 속에서 포토몽타주와 플라주를 들 수 있는데, 그로츠는 색종이나 유리구슬 신문지 및 시집의 그림들로부터 진실주의자의 몽타주를 창작했다.<sup>5)</sup> 다다이즘

3)新即物主義-독일말로, “Neue Sachlichkeit”은 워낙 특수해서 불어의 “Noeuvell Realite, Nouveau Realism, Nouvelle Objectivite, 신객관성, 영어의 New Objectivity”등으로는 불충분하다. Sachlichkeit의 Sache는 즉事象 또는 事物이란 뜻이다. 가장 명백하고, 평범한 의미에서 “사상”, “사물”을 이해하여 보면 존재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다. 즉 대상의 즉물적인 파악인 것이다. 실재성은 관념성에 대립되는 것으로 의식에서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실재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인식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의양, 착각, 허구 등과는 구별되어 참된 모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철학소사전(서울,민중서관) p.127

4)현대미술의 동향 - 정병관 (서울,미진사, 1987) p.50

5)Werner Haftmann, Malerei im 20. Jahrhundert Munchen (Orestel,1987) p.268

1)Selz, P., German Expressionist Painting(California, 1957), p.VII 재인용

2)R.S.Funess, Expressionism ‘표현주의’(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김길중 역, pp.18-19

은 반항적이었고 무의식의 반이성적인 예술로 신즉물주의 화가들은 사물에다가 즉물성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실천하려 했지만, 그들은 사물을 전혀 설명하려고도, 적극적으로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단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외관적인 형태를 아무런 상상적 노력의 개입 없이 받아들였다.

### 2.3. 신즉물주의 회화의 특징과 영향

신즉물주의 회화작품은 인간사회 현실과 예술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듯이 전쟁말기에 혼란된 독일의 사회에서 혁명과 사회민주당의 충돌로 인한 정국의 불안, 나치즘의 대두 및 그에 대한 반항, 도시의 뒷면에서 산업기계화에 밀리는 굶주린 노동자와 전쟁에서 찢긴 부상병들과 기계화되는 과정에서 비인간화되는 사회, 그리고 온갖 부조리의 사회현실을 회화를 통해 폭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신즉물주의 화가들의 현실의 신랄한 비판은 불건강하고 타락한 정신이라는 이유로 히틀러의 '도이취예술의 부활'이란 슬로건 아래 '퇴폐미술'(Entartete Kunst)이라는 낙인을 찍혀 예술탄압을 받게 된다.

신즉물주의 회화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정신적인 측면에서, 객관성,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상물과의 관계를 철저히 지킨다는 점과 대상물을 묘사하는 방법 및 형식의 엄격함을 추구한다는 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상세계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다.

둘째, 표현의 기법적인 측면은 소외와 아상블라주<sup>6)</sup>를 많이 사용하였고, 이를 기본으로 타블로(유화)같은 전통적 매체나 기법 등의 원칙을 고집하지 않고, Drawing, 삽화, 포스터, 판화와 사실적 대상으로서의 사진기술 등 대중과 더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양하게 이용하였다.

신즉물주의 회화는 객관성과 현실의 사실을 바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달성을 극대화한 적극적인 예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즉물주의의 회화 표현은 당시 회화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어진 사진과의 활발한 교류로 무르익게 된다. 사진이 가지고 있는 묘사력은 가장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표현 방법이었었고, 이러한 특징은 다다이스트들에게 몽타주와 콜라주의 방법들로 널리 이용하게 되었다.

### 2.4. 사진에 나타난 신즉물주의의 특징과 영향

근대 미술에서 입체파와 추상미술의 탄생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진은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요역할은 회화작품의 참고 원화로서, 근거를 제공해야하는 회화의 하수인이었다. 하지만 신즉물주의 관점에서의 감정의 배제를 전제로 대상을 객

관적이고 가장 솔직한 상태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회화보다도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sup>7)</sup> 이러한 사진의 속성은 라울 하우스만 등의 다다이스트들에게서 즐겨 사용되었다. 이 시기 사진은 헝가리 화가 라즐리 모홀리나기(Laszlo Moholy-Nagy)와 미국 화가 만레이에 의해 기술적으로 상당한 실험<sup>8)</sup>이 이루어진다. 모홀리나기와 엘리시츠키의 친구이기도 한 알렉산더 로드첸코는 사진을 찍는데 있어서의 각도에 많은 실험을 하게 되는데<sup>9)</sup>, 이러한 과학기술적인 시도들은 당시 입체파, 추상회화, 러시아 아방가르드와 1920년대 건축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로피우스의 관심 하에 바우하우스에서도 교육되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적인 실험보다 사진이 담고 있는 "사실"이라는 입장에서 신빙성은 증거와 자명성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는다. 사진이 가지는 본질적인 속성에서의 신즉물주의적인 자세는 외젠느 앓제를 시작으로 아우구스트 잔더, 그리고 로이 스트라이커가 지휘하였던, 1930년대 경제공황을 배경으로 한 미국농업안정국(F.S.A.)소속의 워커 에반스와 도로시에 랭에 의해 사실을 위주로 한 보도사진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라이프잡지를 통해 현대의 다큐멘터리사진<sup>10)</sup>과 유형학적인 비교사진술로의 영역으로 삼화되어가는 독일 베허스쿨이 생기게 되는데, 베허스쿨의 작품은 사회적 가치로서 의미와 과학적 사고를 기반에 둔 신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07년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수정이나 일체의 조작 없이 작업을 진행한 스트레이트 포토<sup>11)</sup>를 통해 주제 자체의 본질과 개성을 표현하였고, 이러한 특징은 폴 스트랜드에 이르기까지 회화적인 기법을 혼용했던, 사진의 역할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외젠느 앓제는 사진이 그동안 취했던 대상을 지극히 일상적인 것으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워커에반스와 도로시에 랭을 중심으로 한 미국농업안정국(F.S.A.)소속의 작품에서는 소비생활과 미국의 위대함을 알리는 간판과 함께 경제공황으로 떠다니는 이주민들의 처절한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사진들은 후에 미국 회화를 진정으로 대중을 위했던, 그리고 당시 소비사회를 파격적인 기법으로 묘사한 Pop art로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끼친

7) 물론 이 시기의 사진이 작가의 의도로 내포되어 있는 창작물로서의 예술 작품인가 하는 논쟁은 뜨겁게 진행된 바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8) 다다이스트들과 함께 포토몽타주, 포토플라스틱, 레이오 그래프, 포토그램, 이중노출 등 인화지와 빛을 이용한 많은 작품이 시도된다.

9) '배꼽촬영(Bellybutton shots)'-사람이 땅위에 서서 앞을 똑바로 볼 때의 시점으로 찍는 사진을 경멸한다.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아니면 빛각으로.."의 시각을 강조한다.-알렉산더 로드첸코

10) 사진역사학자 뷰폰트 뉴홀은 "다큐멘터리 사진은 사건을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보도사진이 지닌 특수한 의미보다는 어떤 보편적 의미를 지녀야만 한다." 라고 보도사진과의 차이를 말한다.

11) 사진영상에 인위적인 손질을 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생과 자연을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표현한 "솔직한 사진"이다

6) 아상블라주는 이질적 단편들을 무작위적으로 조합하는 콜라주와 몽타주방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위예술의 새로운 이해"-피터 뷔르거, 최성만 옮김, 1986, 심설당 p.127

다. 당시 미국회화는 거의 지도층과 지식인들만을 위했던, 잭슨



<그림 3> 도로시에 랭, 이민가족의 어머니, 1936

폴록 등의 추상적 표현주의계열의 어려운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Pop art의 출현은 매스미디어의 광고와 소비생활의 극대화에 따른 언더그라운드 예술의 시대성의 분출이었고, 그 기저에는 현실을 보이는 그대로 묘사한 신즉물주의적 시각과 사건, 사실을 나타낸 보도사진들과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차곡차곡 쌓아 세계의 사건들을 다



<그림 4> 리처드 헤밀트,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1956

도사진들과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차곡차곡 쌓아 세계의 사건들을 다룬 기록사진집 라이프지, TV라는 매스미디어적 요소가 깔려 있었고, 그 주제는 바로 눈 앞에 펼쳐진 세계의 현실들과 소비도시의 일상이었다. 이러한 Pop art의 출현은 회화에 있어서의 중요한 다른 의미를 가진다. 독일 신즉물주의의 회화가 그러했듯이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sup>12)</sup>

그리고 대중을 위한 예술이라는 점이다. 팝 아트는 부유층과 지식들을 위함이 아닌 급성장하는 소비생활의 주축인 대중을 위한 예술이었다. 리얼리즘계열의 흐름으로 볼 때 Pop art는 “퇴폐미술”로 사라졌던, 신즉물주의 회화와 같은 맥락으로 연결된다.<sup>13)</sup> 속성상 사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신즉물주의의

경향은 뤼미에르 형제에 의해서 시작된 영화를 통해 다큐멘터리영화<sup>14)</sup>로서의 새로운 영역을 자리잡아가게 된다.

### 3. 근대건축에서의 신즉물주의적<sup>15)</sup> 경향

회화에서 시작된 신즉물주의의 정의는 건축이라는 종합예술 속에서 “새로운 객관성, 비감성적, 기능적 태도, 자유민적인 태도”로 발전하게 되는데, 독일회화에서 시작된 신즉물주의와 비

12) Pop art는 양식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대중적인 이미지를 ‘순수미술’의 문맥 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미술가들의 활동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팝 아트, 열화당-에드워드루시-스미드/전경희 역, p.83

13) 신즉물주의-이화여대 석사논문, 1978, p.8

14) 다큐멘터리 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은 1927년 발터 루트만의 “베를린:대도시의 교향악”이라는 영화로부터이다.

15) 건축에서의 즉물성의 의미는 1897년과 1903년 사이에 잡지 “장식예술을 위해”에서 헤르만 무테지우스가 쓴 일련의 평론들 중 “즉물성은 산업사회자체의 개혁을 지향하면서, 대상들의 설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기능주의적인, 그리고 자유민적인 태도..”라는 부분이 건축적인 맥락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현대건축사(I)-케네스 프램튼, 정영철·윤재희역 제1권, 1988, p.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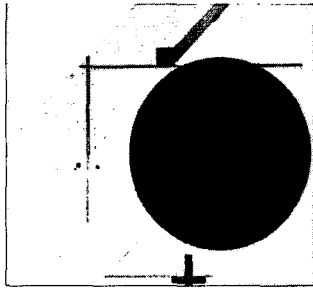
교하면 본래의 의미가 “기능적”이라는 의미가 추가됨을 알 수 있다. 인간의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이라는 영역에서는 필연적이기는 하지만 “기능적”은 후에 신즉물주의 건축자체의 의의를 축소시키는 오해를 초래하기도 한다.<sup>16)</sup> 당시 신즉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건축은 엘 리시츠키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구성주의의 영향 속에서 극대화되었고, 엘 리시츠키의 영향을 받은 데스틸의 반되스버그가 주축이 된 요소주의와 공산주의자인 네덜란드 건축가 마르트 스탬과 스위스의 한스 마이어를 주축으로 스위스에서의 ABC그룹, 네덜란드에서의 아호트 및 오빠우로 전개되어 신즉물주의 건축으로 분류되었다. 독일보다는 훨씬 급진적이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러시아 구성주의는 아방가르드 운동을 통해, 신즉물주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에서의 신즉물주의라는 용어의 입장에서, 그 내용의 방대함을 신즉물적인 경향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 3.1. 요소주의와 러시아 구성주의의 신즉물주의적 경향

화가인 피에트 몬드리안과 건축가 반데스부르그, 화가이자 건축가인 게리트 리트벨트를 주축으로 하는 데스틸은 러시아에서 탄생한 절대주의와 비교되는 엄격한 기하학적 추상을 보여 준다.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와 반 데스 부르그의 요소주의를 골격으로 하는 데스틸은 1917년 10월 잡지“데스틸”의 창간과 함께 탄생한다. 데스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러시아가 아닌 서유럽에서 최초로 완전한 추상예술을 구축하였으며, 이들의 모든 이론은 기하학적 추상에 관한 것이란 점이다.

한편, 요소주의는 신조형주의의 독단적이며, 근시안적인 적용에 대한 반동과, 신조형주의의 평면이 아닌, 공간적 시각의 결합으로 탄생하게 되는데, 이들은 신조형주의의 수평, 수직이 외에 대각선과 기계미학에 중점을 두었고, 시공간 연속체로서의 개방된 4차원의 공간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반되스부르그가 자신의 요소주의에 관한 주장에서 밝혔듯이 개방된 연속적 공간으로 나타난다. 신즉물주의의 관점에서의 요소주의의 핵심은 데스틸을 바탕으로 하는 추상 기하학과 격자구조, 반되스부르그의 대각선의 적용과 4차원의 구현을 통한 시간의 고려에 의한 연속된 개방이다. 이러한 요소주의 건축이 신즉물주의 건축으로 발전하게 된 것에는 절대주의와, 엘 리시츠키의 프라운 개념, 그리고 독일에서의 “즉물성”이라는 용어의 탄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헤르만 무테지우스의 말대로 “즉물성”은 새로운 객관성, 비감성적, 기능적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반되스부르그의 “요소적 예술에의 호소”에서 주장된 요소주의의 ‘반감상주의적 예술..... 과학과 기술에 기초를 비도덕적이며 요소주의적인 규칙들’과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

16) 기능중심의 국제주의양식 건축이라고 평가 절하된다.



<그림 5> 엘 리시츠키, Veshch/Gegenstand/Object의 표지, 1922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918년 독일의 군사적 붕괴로 말미암아 산업화의 테두리 속에 1921년 러시아와 독일은 경제협약을 시작하게 된다. 이 때 엘 리시츠키는 러시아의 비공식 문화사절로 베를린을 방문 하게 되고, 1922년 5월 3개 국어로 발간된 “대상, 즉물, 객관(Vesch/Gegenstand/Objet)-이하 베시치”라는 예술잡지를 창간했는데, 철저히 즉물적인 형태<sup>17)</sup>의 제설기관차의 사진과 절대주의의 기본요소인 점정 정방향과 원으로 구성된 기하학적 추상형태의 두 가지 이미지를 표지로 하고 있다<sup>18)</sup>. 이것은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한 기술적, 기능적 형태, 객관적이며 실용적인 표준화의 대상을 의미하는 기본적인 요소들로서의 추상은 바로 신즉물주의의 기본정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에서는 혁명정후, 1910년경부터 1930년대 초까지 입체-미래파로부터 절대주의, 구성주의에 이르기까지 급진적인 아방가르드적 실험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실험들은 근대 건축의 기류에 지대한 영향을 형성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독일공작연맹과 함께 디자인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독일 바우하우스가 초기의 표현주의적 경향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러시아 구성주의의 노선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sup>19)</sup> 이러한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특성 중 신즉물주의 건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은 말레비치의 아키텍톤과 엘 리시츠키 프라운의 바탕이 된 기하학적 추상을 근간으로 하는 절대주의와 사회적 건설로서의, 건축으로서의 사회적 응축기 개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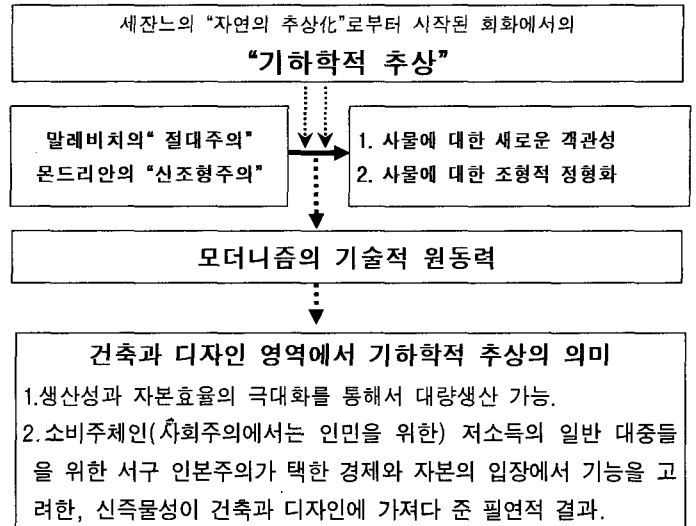
레오니도프에 의해 주로 제안되었던, 이러한 응축기로서의 시설들은 건축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역할의 입장에서, 1970년대 신구성주의라고 정의되었던 OMA(렘 콜하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된다.<sup>20)</sup>

17)형태적 감성을 배제, 눈을 치우기에 최적인 형태의 앞모습을 갖춘 형태

18)현대건축사(I)-케네스 프래튼, 정영철·윤재희 역 세진사, 1988, p.229

19)러시아 구성주의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고등예술기술공방, 즉 브루넷마스의 교육 프로그램을 독일의 바우하우스에서 그대로 반영한 것은 이것을 말해준다. 메트로폴리스-김원갑, 열린책들, p.372

20)렘 콜하스는 그의 저서 ‘정신착란증의 뉴욕’을 통해 도시와 건축의 이상을 얘기한다. 메트로폴리스-김원갑, 열린책들, p.372



<그림 6> 모더니즘과 신즉물주의 건축에서의 기하학적 추상의 의미

### 3.2. ABC그룹과 더 아흐트 및 오쁘바우 운동

기능주의와 구성주의의 한 부분으로 평가절하 되어 온 신즉물주의 건축은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ABC그룹과 니우어 바우원(네덜란드 기능주의운동)이념으로 전개된 오쁘바우와 더 아흐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22년 ‘베시치’의 창간과 함께, 러시아 구성주의자 엘 리시츠키의 결정적 도움과, 요소주의자 반되스부르그에게 영향을 받은 오쁘바우의 일원이기도 한 마르트 스태, 한스 슈미트, 한네스 마이어의 총 6명의 건축가들에 의해 ABC 그룹은 스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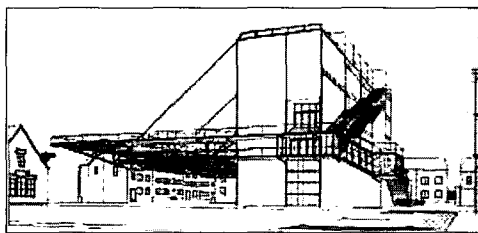
이들은 당시 스위스의 부르조와를 위한 신고전주의적, 전통적 건축에서 벗어나, 노동자 계층을 위한 대중적 건축유형에 관심을 두었다. 주로 한스 슈미트에 의해 결성, 주도되었고, 네덜란드의 마르트 스태의 참여 후 공공대중을 위한 건축, 기능주의적 건축, 하층민들을 위한 집합주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엘 리시츠키의 프라운과 같이 절대주의적이면서도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구성주의적인 작품경향은, 과학적 원리와 기능적 논리에 따라서 사회성을 강조하는 건축에 몰두하는 ABC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 “객관적 기능주의”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ABC그룹의 이러한 러시아 구성주의의 직접적인 영향은 신건축가 협회에서의 순수한 형태위주의 디자인 대신, 보다 실질적이고 기능적인 신즉물주의적 디자인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은 구조와 기능을 보여주지 않는 건물, 즉 신고전주의 건물과 형식주의적 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했다. 재료와 구조에 있어서도

21)ABC건축운동은 Reyner Banham의 언급에 의해 러시아 구성주의의 박사관, H.R. Hitchcock와 P.Johnson에 의해 단순히 국제주의양식의 기능주의 범위 안에서의 고립된 건축운동으로 평가하여, 유럽식 구성주의의 특성을 예시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Philip Johnson and H.R.Hitchcock, *The International style*, new york, 1966 edition, p.28-제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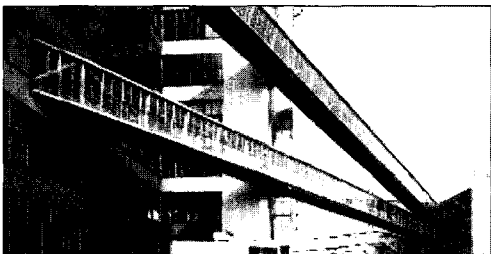
개인보다는 대중에게 기여할 수 있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 부재의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ABC그룹은 대량생산을 위한 기계의 역할에 대해서, 기계가 가지는 기능상의 외형적인 의미를 부정하면서도, 기계를 통한 연속생산, 규격화와 대량생산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는데 기계 그 자체보다는 그 기계로 인해 가능한 대량생산체제에 더 관심을 두었으며 그로 인해 생산된 건축적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ABC그룹의 평면은 공통성이 거의 없는 다양하며 무관계한 기능들 주변에 조직되는 것과 통일화 된 일반 표준들로서 제시된 여러 기능들이 복합되어 있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마르트 스태프는 단일 건물내에 모든 기능을 모으는 대신 다양한 기능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배치는 대지와의 관계와 교통로에 따라 결정되며 단지 내, 외부의 접근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 한스 슈미트는 표준화는 통일성을 의미하고 그것은 공통적 기능을 나누어 갖는 과제의 필수적 해결임과 동시에 경제적인 해결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슈미트의 논리적 이론은 기능을 나누는 대신 모든 관련 기능들을 복잡한 반복적인 부분들 내에서 결합이 가능케 하고 있다. 그는 각 기능에 맞는 모듈을 고안해 내었으며 이것을 각 건물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용은 내부평면



<그림 7> 한네스 마이어와 한스 비트베어, 피터스학교 계획안, 1926

을 암시하는, 잠재적 상징성을 띤 외부형태를 건물에 부여하였다. 한네스 마이어와 한스 비트베어가 계획한 피터스학교



<그림 8> 마르트슈탐, 반 넬레 담배공장, 1926-1930

는 경량감을 강조하기 위해 프라운 식의 볼륨구성을 사용하는 대신, 거대한 날개와 같은 케이בל과 트러스, 노출된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는 2개층의 메달린 데크와 램프로 경량감과 무중력의 감각을 표현하였으며, 네덜란드 오쁘바우의 브린크만과 마르트 스태프가 수석디자이너로 계획한 반 넬레 담배

공장에서는 거대한 유리볼륨과 과격하게 노출된 계단과 램프, 전면에서 역동적 각도로 연결되는 두 개의 브리지들은 ABC그룹의 신즉물주의적 색채를 가장 잘 표현한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1910년 후반기에 발생한 반되스부르크가 주도하던 데스틸과 클라크가 이끄는 암스테르담파의 대립적

이념에 의해 진행되는데, 두 사람의 사망으로 1920년대 말 소멸되기까지, 1920년대 초 이 두 그룹의 활동이 약화된 시기 새로운 건축을 지향한 2,30대의 젊은 건축가 그룹이 태동하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가 로테르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친 오쁘바우 그룹, 두 번째가 더 아흐트 그룹이다. 그리고 1932년 이 두 그룹의 합체인 더 아흐트 앤 오쁘바우를 들 수 있다. 이 그룹들은 건축의 사회적 위치와 새로운 건축의 필요성을 자각하였다. 네덜란드 기능주의 운동을 다른 말로 [니우어 바우원] 'Nieuwe bouwen'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이념은 당시 네덜란드 근대건축을 논하는 주요한 언설로 정착한다. 이들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공업화 사회에서의 건축을 이념과 양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현실적인 배경에서 접근하여, 데스틸의 진보적 이념이나 더 아흐트가 '파사드 건축'이라고 비난한 암스테르담파의 표현주의적 경향을 초월하려 하였다.

메르케르바하가 주축이 된 더 아흐트의 선언문에는 '현실성의 강조', '개인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 '건축의 과학성'을 강조하는데, 메르케르바하는 '건축가는 첫째 미학적인 과제만이 아니고 사회적 과제로서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집합주택의 사회적 위치를 주장하면서 그 배치방법으로서 개방적 배치형태를 갖는 유기적인 주거 지구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러한 집합주택의 두 그룹의 관심은 인간과 건축, 사회에서의 건축가의 위치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무엇보다도 1928년 형성된 CIAM과의 유대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1932년 잡지의 이름을 더 아흐트와 오쁘바우로 하고 단일그룹으로 재구성된다.

신즉물주의적 경향으로서의 ABC그룹과 더 아흐트와 오쁘바우 운동에서의 건축적 정신은 산업화와 기계복제시대의 도시화를 배경으로, 사회를 위한 그리고 민중을 위한 그리고 당시의 진부한 건축적 정신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ABC그룹의 가장 큰 기여도는 1928년 스위스 라사라에서 창립된 CIAM(현대건축 국제회의)창립의 핵심적 역할일 것이다. 이 회의에는 ABC의 대부분이 회원들이었으며, ABC 출신인 Karl Moser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발표된 헌장은 근대건축의 표준화, 합리적 기능주의 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ABC의 이념들로 거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3차 CIAM회의까지 주도적이었던 ABC 출신들의 러시아 이주를 계기로 이들의 신즉물주의적인 성향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기디온과 쾨르비지에의 주도하에 주관적인 기능주의 건축인 "국제주의 양식"으로 변질된다.

1918년 신즉물주의 회화로 정의되기 시작한 신즉물주의 건축은 회화, 과학기술, 이데올로기와 사회구조변화와 위기 등 서구인본주의의 시대적 특수성을 그대로 반영한 거울임을 알 수 있다. <표 1>과 <그림 2>는 회화와 건축에서의 신즉물주의의 특성과 기본개념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표 1> 신즉물주의 회화와 건축의 특성비교

		신즉물주의 회화	신즉물주의 건축
시기(장소)		1920년대(독일 중심)	1920~1930년대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중심)
사회적 특수성		1. 1차 세계대전 전후의 사회적 불안감. 2. 산업기계화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몰락빈민층의 증가와 인간성 상실 3. 정치적 경제적 지배계급의 부조리극심과 나치즘의 대두.	1. 산업화와 기계화에 따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갈등 심화. 2. 저소득층의 일반 민중에 대한 인식이 극대화. 3. 사회주의적 분위기 조성(러시아)
예술적(회화, 건축) 상황		1. 전통적 기법과 소재로 탈피. 2.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주관적 감성으로 표현한 "표현주의 회화"에 대한 반대. 3. 귀족과 지배계급이 아닌, 대중을 위한 대중(도시민)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묘사	1. 전통적 건축, 신고전주의적 건축 탈피. 2. 부르조와 계급만을 위한 주관적 감성의 건축 반대. 3. 인민, 대중을 위한 건축과 공공성을 위한 집단을 위한 기능주의적 건축 지향.
표 현 특 성	객관적 사실성	1. 회화 주제로서의 권력층과 빈민층, 그리고 도시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묘사. 2. 사회적 상황외의 풍경과 정물의 표현에 있어서도, 일체의 과장 없이 사실적인 모습을 작품에 적용.	1. 건축의 의미를 시대적 상황에 재조명. 2. 지배구조의 변화와 산업화, 기계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민중과 공공을 위한 건축으로서 건축의 기능과 효율, 수행성에 집중.
	비언어적 조형성	1. 작가의 주관적 감정을 배제한 사실성. 2. 사진의 조작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모습을 작품에 적용.	1. 전통적 건축이 가지는 장식과 주관성을 배제. 2. 기하학적 추상과, 절대주의,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절제된 기계미학.
	수행을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적 시도	1. 유화, 드로잉, 삽화, 판화 등의 다양한 시도 2. 특히 다다의 영향으로 사진기법을 적극적으로 이용, 콜라주, 몽타주 등을 통한 시대성 표현.	1. 대량생산과 기술특제 발전의 원동력인 기하학적 추상, 절대주의, 러시아 구성주의, 요소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2. 기능과 효율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기술적 구조를 제시.
	사회적 참여성	1. 전통적 회화가 가지는 사물(주제)에 대한 시각을 바꿈으로서, 회화를 통해 사회 참여 유도. 2. 현실에 대한 비판이 담긴 주제로, 대중들을 위한, 하층민을 위한 예술로 발전되어 민중예술, 선동적 예술로 간주.	1. 엘 리시츠키를 중심으로 러시아 구성주의와 ABC그룹, 더 아흐트의 메르케르 이하의 건축적 정신은 사회주의적 건축을 배경으로 한다. 2. 각종 선언문과 출간된 잡지들은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 홍보하였다.

## 4. 렘 콜하스(OMA)의 신즉물주의적 경향

### 4.1. 렘 콜하스의 현대성(Modernity) 재조명

새로운 객관성과 과학적 기술을 이용한 기능주의, 그리고 민중을 위했던, 1920년대 일어났던 신즉물주의 건축의 정신의 소멸은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정보산업사회의 발전으로, OMA(렘 콜하스)의 등장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도시화와 세계화라는 명제는 그간의 언어와 형식과 기술에 끌려가는 건축적 현상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현대성을 담아내고자 하는 의지의 건축가들이 나타나게 된다. 모더니즘을 포함한 이제까지의 건축에 의심과 비판을 가하면서 신즉물주의적인, 다시 말해 객관성을 위한 새로운 모더니티의 시각을 실험,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의 핵심은 현대성의 인식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전지구화와, 정보산업사회의 발전을 핵심으로 도시와 건축의 시각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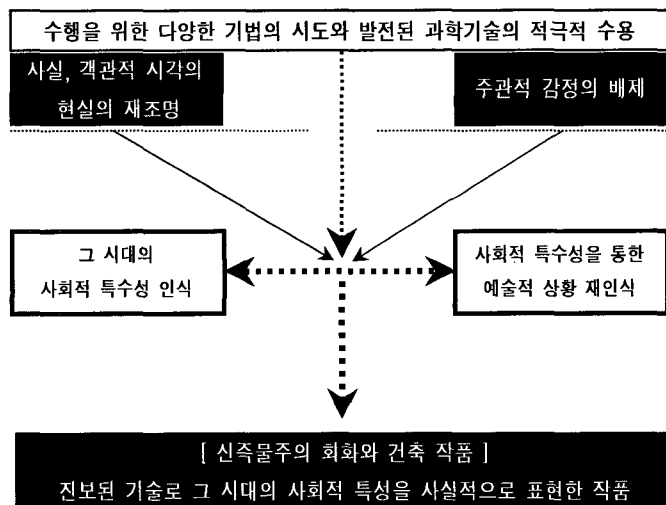
이들 중 선두에 있는 렘 콜하스(OMA)는 1970년대 초반 이후 도시와 건축에 있어서 많은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인다. Haagse Post의 신문기자로서, 영화극작가로서의 배경을 가진 렘 콜하스는 런던 AA School에서 1972년 학위취득과 함께 한 'Exodus' 계획안은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구조를 건축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주목을 끌기 시작한다. 렘 콜하스는 1970년대 1980년대 사이에 유행하였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에 반해, 신구성주의자로서 러시아 구성주의의 환기시키게 되는데, 모더니즘의 보편성과 국제화를 비판하며 지역성과 전통을 부르짖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을 비판하며, '근대화는 어느 곳이나 새로움을 가져왔으며, 역사와 개별성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새로운 현실 인식에 방해가 될 뿐'<sup>22)</sup>이라 주장한다.

### 4.2. 렘 콜하스(OMA)의 신즉물주의적 특징

#### - 도덕적 기준과 원칙의 부정

기존의 신즉물주의 건축의 특성과는 달리 렘 콜하스(OMA)의 신즉물주의 특성에 주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현대성이 내포한 기존의 것을 부정 혹은 의심하는 네오 아방가르드적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는 지속 발전되고 있는 모더니티의 현 상황을 불확정성이라는 원칙 속에서 작품에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원칙의 부정, 백지상태에서의 시작, 자유의지와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폭넓은 과학기술이론들의 수용으로 극대화 된다.

건축과 도시를 'BIGNESS', 'GENERIC CITY'의 이론으로 규모에 따른 건축, 건물의 유일한 존재이유를 텅 빈으로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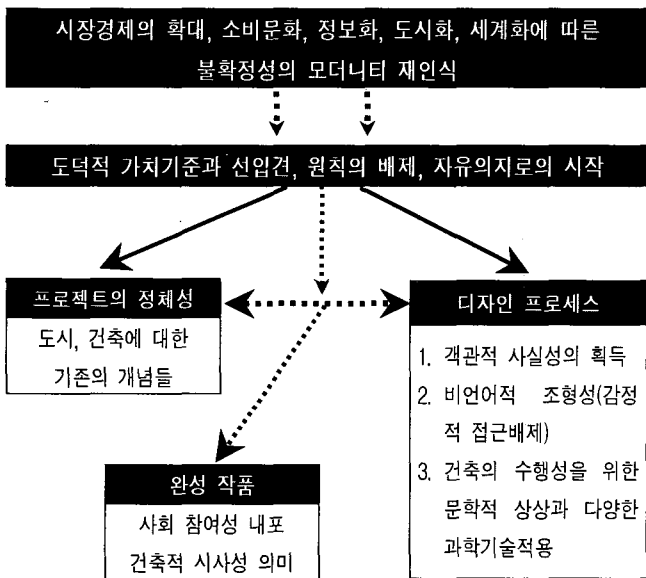


<그림 9> 신즉물주의 회화와 건축 작품의 구성개념

22)Alejandro Zaera Polo, The Day After,El CroquisP53+79, p.51

하며 볼륨의 펌프식 주입을 할 수 있는 거대한만이 단일용기내의 사건들의 무차별적 양산을 위한 완전한 자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램 콜라스(OMA)의 건축과 도시의 모더니티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저서와 함께, 무수히 실험되었던 현상설계 속에는쟁이 되곤 하는데, 램 콜라스는 '현상설계의 당선보다는 현상설계 자체에서의 주요쟁점으로서의 부각이 중요하며, 이러한 평판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평판에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험은 우리의 상태를 부수어버릴 수 있는 것을 찾는 노력'이라고 주장한다.

3장에서 확인한 신즉물주의의 회화와 건축에서의 핵심은 시대적 특수성이 작품에 사실적으로 재현된다는 점인데, 그림 10은 기존 신즉물주의의 특성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당면한 시대성의 재조명(현대성의 재인식) 시작 단계에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객관성의 획득을 위해, 도덕적 선입견과 원칙을 부정하며, 백지상태를 시작으로 한 램 콜라스(OMA)의 응축적인 신즉물주의적 디자인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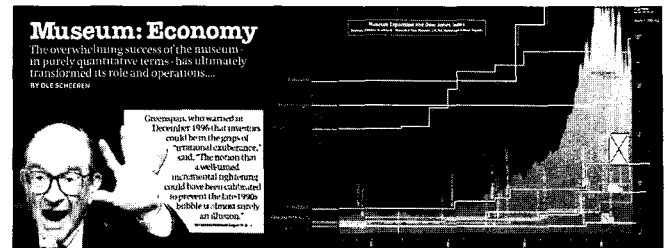


<그림 10> 램 콜라스(OMA)의 신즉물주의적 디자인 과정

### 4.3. 정확한, 새로운 객관성의 획득을 위한 노력

램 콜라스(OMA)는 시대성의 정확한 재인식과 현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연구와 조사를 통한 정확한 통계적 수치와 그래프들, 그리고 시각적이고, 정확한 설득력을 내포한 시사적 의미의 사진이미지들과 강력한 타이포그래피로 진행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지금까지의 도시와 건축의 생성과 발전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수단으로 여기며, 각각의 통계 수치와 그래프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들과 단락들은 프로젝트 해결의 실마리로 이용된다. 여기서 램 콜라스(OMA)는 과거 다다이즘과 신즉물주의 회화에서 시작된 사실적 사진을 회화에 접목시킨 플라쥬된 사진, 몽타쥬된 이미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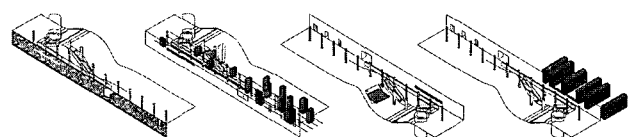
을 포르노 그래픽적인 자극성으로 표현하여, 프로젝트의 당위성과 현대성을 고발한다.



<그림 11> 박물관과 경제의 역사적인 발전 속도와의 상관성을 비교분석한 그래프

이러한 일련의 그래픽 작업들은 신즉물주의 회화의 즐거움을 잇는 5, 60년대의 팝 아트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과거 신즉물주의 회화와 팝아트가 귀족과 지배계층을 위한 예술이 아니었듯이, 램 콜라스(OMA)가 주목받았던 대부분의 프로젝트 주제 역시 개인을 위한 주관적인 건축이 아닌, 거대도시의 경제생활을 하는 소비중심의 대중을 위한 건축과 도시계획이었음을 말해준다. 최근의 램 콜라스(OMA)는 AMO라는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신빙성과 정확성을 위해 조사전문가 조직에 의해 구성하여, 위와 같은 그래픽 작업들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앞서도 언급한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함께 지금까지 무시되었던 많은 현대성의 재인식에 결정적인 단서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도시 계획가이자, 건축가인 램 콜라스(OMA)는 뉴욕과 LA의 럭셔리 브랜드인 프라다 매장을 계획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모더니티에서의 럭셔리 브랜드가 가지는 정체성을 의심하고,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작품을 시작한다. 매장의 전체 평면을, 새롭게 분석 제안하였고, 소비생활, 패턴 그리고 구매행위를 바탕으로 한 VMD의 접근을 정보화시대의 현대성을 바탕으로 분석 제안한다.



<그림 12> 뉴욕 프라다매장 계획안

허미타지 뮤지엄 프로젝트에서는 뮤지엄의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대중들을 위한 뮤지엄의 현실을 자본주의내에서의 경제발전과의 비교를 통해서 고발하고, 폐쇄된 실내에 안치되었던 전시물들을 태양광과 함께, 외부공간과의 교감을 시도하므로써 더 직접적이고, 생산적인 뮤지엄의 전형으로 제안한다.

### 4.4. 비언어적 조형성-감정의 배제

신즉물주의 회화와 건축의 공통점은 모두 다 전통적 기법의 탈피와 주관적 감성의 배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램 콜라스(OMA) 역시 건축이 가지는 본연의 수행성과 작동성 이외의 장식과 수사를 부정한다. 전통과 과거, 감성과 개인화, 형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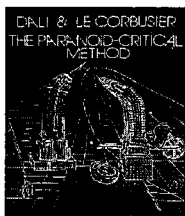
<그림 13> 프랑스 국립도서관-기하학적 입방체들의 프로그램화

언어, 기술표현의 집착 등을 포기하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한다. 램 콜하스(OMA)가 가지는 디자인 언어는 과거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와 공간에 시간성과 개방성을 주장한 반되스부르크의 요소주의가 절충된 데 스틸, 엘 리시츠키의 프라운 등의 기하학적 추상을 원형으로 한다. 초기에는 레오니도프와 말레비치의 영향아래 절대주의적 추상기하학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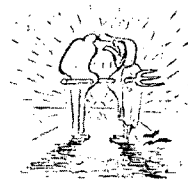
나가는 하지만, 최근의 작품들에서는 엄격하게 비대칭과 비선형성, 불확정적이고 동시적인 물질적 자질들이 다차원적인 기하학적 형태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기하학적 조형미학을 근간으로 형태에 있어서의 작가의 개입은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후의 발전된 다양한 과학기술을 전제로 의식적인 장식과 감정이입이 배제된 기능적 구조미로 표현된다.

#### 4.5. 건축의 수행성에 초점 - 초기능적 건축을 위한 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

램 콜하스(OMA)의 작품에는 극도로 긴장된 구조가 노출된 원시적인 형태가 나타난다. 고가도로, 엘리베이터, 보행로, 램프, 계단, 기계적 시설 등의 모더니즘의 야만성과 자본주의 문명의 순환체계를 적극적으로 건축에 활용한다. 이러한 양상은 모더니즘의 부정이 아닌, 모더니즘적 요소의 선택적 활용과 새로운 이해로서 평가되어진다. 이러한 특성은 램 콜하스(OMA) 자신의 저널리스트로서의 배경과 함께, 건축의 최대한의 효율성을 위한 문학적 상상력에서 비롯되는데, '정신착란증의 뉴욕'에서 마천루 시나리오들은 달리와 훗설(Edmund Husserl)을 상기함으로써 차연의 유희를 즐기게 되며 에피소드들은 전부 편집증적 비판방법(P.C.M.)에 의해, 일련의 편집적 스토리를 갖게 되는데,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들 사이의 기묘한 삼각관계는 웰페어 팰리스 호텔을 낳게 만들며, 맨하탄의 모든 마천루들은 비밀스럽고 탐욕적인 욕망에 사로 잡혀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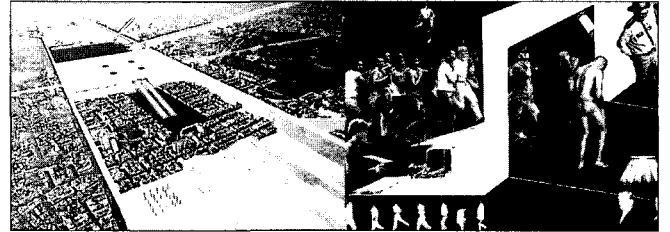
<그림 14> 마들롱 브리에장도르-살바도르 달리의 PCM에 의한 만종



다. 초현실주의적 상상은 인간의 감추어진 무의식을 표출하는 공간을 형성한다.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인 과정은 편집증적 비판방법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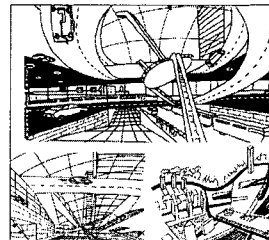
것은 비합리적인 세계를 절대적인 주관에 의해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편집증의 증세에서 착안하여 자신의 강박관념을 분석하

고 그것을 다시 체계화한다. 즉 자신의 강박관념에 따라 현실 대상의 형태를 왜곡 또는 변형하여 상식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묘한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의 일치에서 무의식적 욕망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그의 저서 'S,M,L,XL의 대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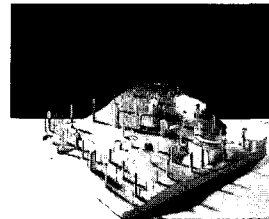
<그림 15> 대탈출 혹은 건축가들의 자발적 감금자들 "S,M,L,XL"

혹은 '건축가들의 자발적 감금자들'에서도 픽션적 플롯에 의해



<그림 16> 릴 프로젝트 계획안에서의 피라네지안식 드로잉

기능을 결정하는 디자인을 행하고 있으며 '유라릴' 프로젝트와 체뵤르 게 터미널 프로젝트에서는 피라네지안식 상상을 통한 드로잉으로 건축과 도시의 적극적 작동성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상상력은 발전된 현대 과학기술의 적용으로 돋보이게 되는데, 과학기술의 적용은 꼬르비지에의 "아름다운 기계로서의 주택"의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적극적이고,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된 예술적 감성의 SF적 개념이다. 1968년부터 1972년까지의 AA스쿨에서의 피터 쿡 등의 실험성 강한 야기그램의 영향을 간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영향은 그의 초기 작품들인 엑소더스 계획안과 콜럼버스 센터의 달걀계획과 스펡스 호텔계획, 웰페어 아일랜드 계획에서의 건축적 상상을 통해 잘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적 상상은



<그림 17> Aadir in Morocco

현대의 과학 이론들에 의해 적극 반영된다. 램 콜하스(OMA)의 실험들 중 프로그램의 집중 외에 가장 지적인 발명은 러시아 구성주의로부터의 절제된 추상기하학의 답습을 뛰어넘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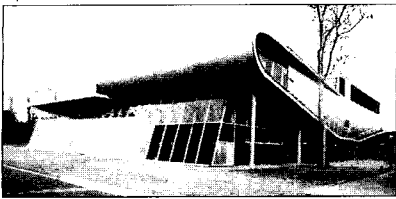


<그림 18> 보르도주택-이 집에 창조적 작동성을 부여한 피스톤과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룸

하학의 재발명과 이벤트들의 기하학화라고 할 수 있다. 램 콜하스(OMA)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발전된 과학들은 후기-자본주의 문명의 발달에 따

른 현대성에 비추어 이해될 수 밖에 없다. 장애자를 위해 방으로 선택한 엘리베이터 기능의 새로움을 보여준 보르도 주택과, 램프가 가지는 연속성과 개방성을 새롭게 제시한 '쿤스트 할

뮤지움', 끊임없이 연속해서 요동치는 요술 카페트로서의 램프를 보여준 '취시에 박물관' 바닥과 벽과 천장이 하나로 연결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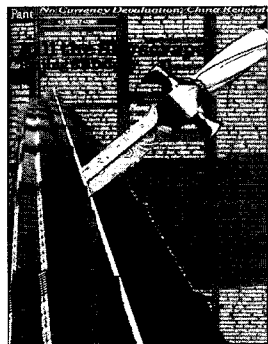
<그림 19> 에듀케토리움-벽, 천정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바닥면

'에듀케토리움', Agadir 컨벤션 센터나 Karlsruhe의 ZKM 또는 Paris의 도서관과 같은 지형학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변화하는 실체로서의 형태에, 흐름과 변형의 조합으로서의 현실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이 최대한 작동할 수 있는 수행성에 초점을 둔 새로운 시각과 이것을 가능케 하는 과학기술의 적극적 수용의 결과물들은 많은 주목을 끌게 된다. 이러한 작품들은 1920년대 신즉물주의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기능적 구조미와 수행적 의지를 보여주는 이상적 기능주의의, 현대성을 내포한 초기기능주의로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 4.6. 건축의 사회적 참여성

램 콜하스(OMA)는 1970년대 초기 사회적 응축기를 비롯한 좌파적 성향의 집단과 건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더 아흐트의 메르케르바하의 입장처럼, 건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그림 20> CDB 매거진 현상설계-새로운 마천루 캠페인

거대도시를 위한 건축사무소인 OMA의 거울이라고 명칭하는 AMO라는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도시와 건축을 위한 이상적이고 논리적인 조사연구행위와 캠페인으로 전개한다. 중국 후통의 CDB 매거진 현상설계에서는 거대도시 속에 생겨나는 기존의 분리된 스카이스크래이프에 의한 도시의 커뮤니티가 아닌, 메가 빌딩을 주축으로 한

분산된 코어로서의 빌딩을 제안하였다. 비록 현실성의 결여로 낙선되었지만 '스카이스크래이프 캠페인'이라는 타이틀로 신도시 마천루 계획에 있어서의 이중프로그램이라는 독립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였고, 베이징 개발에 있어서는 현재의 것을 보존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문화와 역사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서 건축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한다. 브뤼셀 광장에서의 유럽연합 캠페인을 통해, 유럽연합이 각 국가들의 개별성을 내포해야함을 주장하면서, 유럽연합의 국기를 각 국의 색채가 들어 있는 바코드 형태로 디자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건축의 영역을 사회, 문화적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영역의 확대에 대한 이유에 대해, 램 콜하스(OMA)는 건축가의 의지는 사회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이슈에 잠재적



<그림 21> AMO, 'CONTENT'의 표지, 2004

으로 휩쓸려가게 되는데, 이러한 캠페인은 잠재적 행로에 대한 축소를 조장하고, 그럴 때만이 아름다움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2004년 AMO는 'CONTENT'를 출간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테두리와 도시, 건축과의 상관관계를 자신들의 프로젝트와 함께 팝아트적, 그리고 풍자적 이미지와 통계수치들로 표현하고 있다.

그 시대의 일반적인 지적자세의 혁명으로서 사상과 감정의 새로운 일반적 즉물성으로서의 사회의 본질에 대한 비감성적 접근으로 하는 신즉물주의적 특징은 램 콜하스(OMA)에서 급진적으로 실험되고 있다.

<표 2> 램 콜하스(OMA)의 신즉물주의적 일반적 특성과 기법적 특성.

	신즉물주의적 일반적 특성	램 콜하스(OMA)의 기법적 특성	
주요 시기	1. 1970년대 신구성주의적 작품발표. 2. 1990년대 이후 활발한 활동.		
사회적 특수성	1. 베를린 장벽 붕괴, 이데올로기 붕괴. 2. 과학과 건축기술의 발달. 3. 정보화를 통한 세계화, 도시화가 가속. 4. 소비, 경제중심의 자본세력의 급성장.		
건축적 상황(명제)	1. 전통, 기술, 철학, 언어 지향적 건축에서의 회의성 대두. 2. 현대성의 재인식을 통한 새로운 건축 필요. 3. 자본주의의 경제구조, 흐름과 대도시의 소비생활이 주요 문제.		
표현특성	객관적 사실성	1. 도시, 경제, 세계, 정보화라는 현대성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 강조. 2. 이러한 재인식의 정확성을 위해 전통적 의미의 건축 사고를 지양.	1. 검증된 객관적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조사, 연구, 분석. 2. 도표, 그래프, 다이어그램 이용. 3. 보다 극단적인 방법으로선임 견과 원칙의 부정, 백지상태의 시작을 강조.
	비언어적 조형성	1. 전통과 근대, 현대건축의 주관적 감정, 장식 배제. 2. 절대주의, 요소주의, 구성주의의 절제된 미학이 바탕,	1. 해체주의의 해체를 건축을 위한 진정한 해체가 아닌, 장식에 비유. 네오모던의 수사적 건축을 비판. 2. 거대도시라는 시각에서의 건축의 진정한 내부와 외관을 강조.
	수행을 위한 문학적, 과학기술적 시도	1. 건축의 수행성을 위한 다양한 회화적,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한 구상. 2.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 기술을 지속적, 적극적 활용.	1. 피라네치안, 편지증적 비판방법, 아상블라주 등의 아방가르드 기법들을 주관적 형태구축이 아닌, 필연적인 건축의 초기능적 존재성을 위한 구상수단으로 이용. 2. 양자역학, 카오스이론 이후의 수학, 과학적 기법들을 적극 활용.
사회적 참여성	1. 선언문들과 저서 "정신화란종의 뉴욕"에서 환기시킨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과 같은 사회주의적 성향의 집단적 건축을 상상 묘사. 2. 건축의 사회, 문화적, 기능적 목적을 파괴함으로써의 주목성 부각.	1. "AMO"라는 독립재단을 운영하며 건축을 주제로 하는 캠페인을 통해,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 2. 각종 현상설계와 건축적 제안에서의 주요 이슈는 설계안의 채택보다는 작품의 논쟁화를 통한, 건축을 "사회적 대화"의 현상으로서의 유도에 중점.	

<표 2>는 회화와 건축에서의 신즉물주의적 표현특성을 기준으로 램 콜하스(OMA)가 가지는 신즉물주의의 일반적 경향과, 현대성의 재인식을 배경으로 한 불확정성에 의해 램 콜하스(OMA)에게서 더 구체화된 기법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 5. 결론

사실주의 양식인 신즉물주의 회화의 본질적 의미는 르포타주 문학과 보도사진, 다큐멘터리 영화, 신즉물주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게 된다. 신즉물주의의 핵심은 새로운 객관성의 획득을 위한 여과 없는 현실의 재조명이다. 이러한 재조명의 과정은 참여정신과 비판정신을 수반하게 되고, 메세지로서 선동적 위치에 놓이기도 하는데,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퇴폐예술, 민중예술로 탄압받기도 하였다.

신즉물주의 회화는 시대적 상황의 인식을 통한 회화자체의 예술적 상황의 재인식으로 표현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는 주관적 감정이 배제된 사진의 활용과 다양한 기술적 접근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객관적 시각과 사실성으로 표현되고, 동시에 사회 참여적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회화에서의 신즉물주의적 특성과 흐름을 통해 건축과 렘 콜하스(OMA) 건축에 나타난 신즉물주의적 경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즉물주의적 경향의 건축은 회화에서 비롯된 대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의해 재해석된 기하학적 추상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복제시대의 기능주의와 서구 인본주의와 사회주의인 러시아 구성주의의 바탕이 된 민중(인민)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 이러한 신즉물주의 건축은 스위스의 ABC그룹, 네덜란드에서의 더 아흐트와 오쁘바우에서 극대화되었는데, 기존의 개인적이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건축을, 대중과 사회를 위한 건축의 의미로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는 CIAM(현대건축국제회의)형성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3) 렘 콜하스(OMA)는 소비문화, 정보산업사회의 팽창과 세계화, 발전된 과학기술들을 주요 이슈로 한 작품들을 급진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객관성의 획득을 위해 과거 신즉물주의 건축보다 더 극단의 방법을 택하는데, 그것은 현대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현대성의 불확정성을 의심하고, 도덕적 가치기준과 원칙의 부정, 백지상태에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주관적 감정과 장식, 수식을 부정했으며, 건축이 최대한 효율적,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수행적 성격을 가지도록 문학적 상상력과 폭넓은 과학기술이론들의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 작품들은 그 시대의 사회적 일반성과 특수성을 내포하였다.

건축에서의 신즉물주의적 경향을 의학에 비교하자면, 피부와 성형을 다루는 의술보다는 심장과 뇌에 관련된 의술과 비교할 수 있다. 기능이 그대로 노출된 극도의 긴장감과 배제된 장식,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매로, 도시와 건축에 최대한의 효율성과

수행성을 위한, 그리고 사회적 해결 도구로서의 양상을 나타내는 이러한 신즉물주의적 경향의 작품들은 그 시대의 사실적 특성을 재현한 작품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이 밖에 렘 콜하스(OMA)출신이기도 하지만, 렘 콜하스(OMA)와는 달리 민주적, 객관적 분석에 의한 건축적 접근을 보여주는 MVRDV를 선두로 하는, 1990년대 이후의 네덜란드에서의 Second Modernity 건축들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더니티의 재조명이라는 동일한 신즉물주의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작품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AMO/REM KOOLHAAS/SIMON BROWN/JON LINK, CONTENT, TASCHEN, 2004
2. Veronique Patteuw 편집/최학종 역, MVRDV 건축읽기, 시공사, 2004
3. 한정식, 사진예술개론, 열화당
4. 뷰몬트 뉴홀, 사진의 역사, 열화당
5. 케네스 프랩튼/정영철·윤재희 역, 현대건축사, 세진사, 1987
6. 제임스 팰패스/정현이 역, 리얼리즘, 열화당, 2003
7. 앤소니기든스, 올리히백, 스콧래쉬/임현진·정일준 역, 성찰적 근대화, 한울, 1998
8. 철학사사전, 민중서관
9. 정병관, 현대미술의 동향, 미진사
10. OMA(Rem Koolhaas), Bruce Mau, S,M,L,XL 010 Publishers, 1995
11. 김원갑, 매트르폴리스-아방가르드 예술과 건축에 관한 13가지 주제, 열린 책들,
12. 권터 메트켄, 베르톨트 힌츠/안규철 역, 신즉물주의와 제3제국의 회화, 열화당
13. 이나경, 신즉물주의-그 기원과 이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14. 정용일, 표현주의와 신즉물주의의 정신성에 관한 비교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5. 이경민, 현대독일에 있어서의 신다큐멘터리 사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6. 김혜령, 미국의 FSA 다큐멘터리 사진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7. 진경돈·이강업, ABC국제구성주의 건축운동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3권 3호, 1997년 3월
18. 진경돈·이강업, 기술복제시대의 건축과 한네스 마이어의 Co-op 작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3권 4호, 1997년 4월
19. 최재석, 더 아흐트 및 오쁘바우 건축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7권 11호, 2001년 11월
20. 김원갑, ABC그룹이 근대 건축 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0호, 2002년 2월

<접수 : 2005. 4. 29>